

非 唯物的 哲學觀(三)

裴相河

사랑은 아릿싸운 것이다. 이 사랑에서 얼마나 고흔 詩들이 생겼느냐 예수 敎의 根本眞理인 사랑은 神을 象徵하고 있다. 그리고 神은 崇美의 權化로 볼 수 있스니 사랑은 아릿싸운 것의 한 表現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럼으로 우리네 가슴속엔 얼마나 썩리깊히 美에 對한 사랑이 박혀잇는 줄을 알 것이며 또 思想의 進歩과 文化의 啓發이 □晚된 □□의 原始的傳說에서도 이러한 物外의 사랑 卽 心的 美의 要求가 表現되어 잇슴을 볼지라도 아릿싸운 것을 찾는 사랑이야말로 人類生活의 最大條件의 하나라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 끈임없는 美的 愛는 文學藝術이란 形式 가운데에 그의 隱遁所를 發見하고 잇슴은 여기서 筆者가 細細히 말할 必要도 업는 터이다. 勿論 文學 藝術 가운데에는 物的 影響을 맞고 생긴 것도 만키야 하지만은 이 影響은 單只 美的 愛의 한 表現形式인 文學 藝術에 限할 다. 름이지 美的 愛 그 自體는 決코 物的 支配를 맞지 안는 것이다. 卽 美的 愛는 우리네 가슴속에 窹 업시 잠겨잇는 『非 唯物的인 것』의 하나라 할 수 있을 것이다.

三. 形而上學(一)

보히지 안는 것

무엇을 기대린다는 것은 人生生活의 가장 큰 苦痛의 하나인 안이라고 뉘라 否定할 수 잇스랴? 俗談에 『하도 기달려서 목이 네발(四支)이나 싸졌다』는 句가 잇는 것 가티 기대리는 동안의 지리한 瞬間瞬間은 기대리는 사람으로 하여금 正말 목이 네발이나 싸지는 것 가튼 苛酷한 苦痛을 준다. 그러나 期待란 一環으로 싸쫓한 憧憬을 包含하고 잇스며 憧憬이 업서지는 쎄엔 우리의 生活은 歸無라 할 수 잇스니 이 憧憬의 맛으로 말미암아 언젼까지든지 우리는 무엇을 기대리게 된다. 무엇인지 더 나흔 것 무엇인지 더 아릿다운 것 무엇인지 더 새로운 것을 기리리지 안코는 우리는 살지 못하는 것이다. 이는 消極的 方面이로되 積極的으로 能動的으로 우리는 우리가 憧憬하고 잇는 그 Etwas를 차즈려고 애쓴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더 나흔 무엇을 어드

러는 끈임 업는 慾望에 타고 있다. 이 慾望이 滿足될 때 저 慾望으로 그 慾望이 滿足을 어들 때 또 다시 다른 慾望으로 이리하여 人生의 生活은 끈임 업는 慾望의 連續이며 人과 人의 接觸相關은 『소펜하웨르』가 『盲目的 意志의 爭鬪』라고 한 것 가티 永久히 完全한 滿足을 얻지 못하는 人生慾望의 相克이라 할 수 잇슬 것이다. 萬若 이러한 慾望이 全然 엄서지는 때가 잇다면 그 때야말로 우리의 世上은 엄서지고 地上의 樂園(얼마나 만흔 사람이 헛되 게 꿈 꾸엇든가)이 建設될 때이다. 이 慾望이 잇기 때문에 우리의 世上이 우리의 世上 그대로 維持를 하는 것이며 또한 우리의 世上 그대로에 相當한 괴롭도 隨伴하는 것이다. 그럼으로 『스토이커』가 이 人間의 慾望을 抑制함으로써 慾望에서 生기는 苦悶을 免할 수 잇고 爽해서 平靜한 生活 安穩한 內的 道德的 生活을 어들 수 잇다는 哲學說을 樹立하니만큼 慾望의 苦痛이란 몹시도 우리의 生活을 散亂하게 하는 것이다. 그러나 『스토이커』가 果然 그네들 理想대로 人間의 慾望을 抑制할 수 잇섯느냐하면 이는 빈말이니 그네들의 『慾望을 抑制하자』는 心事自體가 발서한 慾望을 表現하고 잇는 것이다. 마치 徹底한 懷疑主義가 모든 것을 疑心할 수 잇드래도 自己의 立說만은 疑心치 안는 模樣으로 設或 모든 外的 慾望을 抑制 할 수 잇다하드래도 『抑制』하자는 內的 心的 慾望만은 抑制치 못하고 잇는 것이다. 이럼으로 (나는 여기서 區區히 『스토이커』를 反駁커나 또는 慾望을 心理學的으로 分析커나 할려는 것은 아니다만은) 慾望이란 어느 時代 어느 곳 어느 사람에게든 지 多少의 性質은 姑舍하고라도 꼭 包含되어 잇다고 斷言할 수 잇슬 것이다. 勿論 人生生活에 必要한 慾望 가운데에라도 여러 가지 種類가 잇슬 것이다 만은 于先 本能的 慾望 卽 食慾 性慾 等은 헤아리지 안트라도 먼저 말한 바와 가티 美에 對한 慾求(美的愛) 또는 다음의 論述하려는 『보히지 안는 것』을 차즈려는 慾望도 큰나큰 慾望의 가지가지이다. 萬若 우리가 우리의 그날 그날의 現狀으로써만 滿足하며 또는 우리의 思想이 表面的으로 나타난 現象만으로써 眞理라고 斷定한다고 할 것 가트면 客觀적으로 봐서 이러한 生活은 너무나 平凡한 生活이며 이러한 思想은 너무나 素朴한 皮相的 思想일뿐 主觀적으로 볼지라도 生活의 主며 思想의 主人 우리는 到底히 이와 가튼 平凡한 生活 淺薄한 思想에만 滿足지를 못하는 것이다. 現時生活의 건너편에 더 낮고 더 훌륭하고 더 旺盛한 生活을 우리의 生活은 要求하고 잇스며 낮 하나지 안코 보히지 안는 것 現象의 本體, 眞理의 根源을 우리의 思想은 찾고 잇다. 萬若 더 나흔 生活에게 拒絶을 當한 民族이 잇다면 이 民族만이야 참으로 불상한 民族인것과 가티 (우리는 慟哭하고 십지 안흔가) 現象의 根源 卽(보히지안는것)을 찾지 안는 사람이 잇다고 할 것 가트면 나는 그 사람을

사람이라고 불으지만 사람의 껍질을 쓴 사람 아닌 動物이라 할수 맞게 업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보하지 않는 것에 對한 慾求 卽 形而上學的 要求를 갖지 안흔 사람이 잇다면은 그 사람은 理性을 갖지 안흔 사람이니 理性을 갖지 안흔 사람은 사람 아닌 物的 存在라 할 수 박게 업시 된다.